제 66호 분위기 조성하기 2: 위엄

제 연구실 옆방에는 신임여교수가 있는데 실룩샐룩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됩니다. 학생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력이 없거나 강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남자 천지인 공대의 여교수, 아직 여학생 같이 앳된 얼굴과 조그마한 체구, 높은 목소리 ... 이 모두 위엄과 거리가 멀고 강의실 분위기를 장악하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임여교수는 매일 정장을 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부를 적에 반드시 박사님이라는 칭호를 쓰게 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줄 수 있는 일도 일부러 다문 하루라도 뜸을 들인 후에 해 준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거대한 체구에 무성한 수염까지 기른 어느 교수님은 학생들을 마치 친구처럼 격식 없이 대하였답니다. 그렇게 학기를 반쯤 보내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의 친절을 너무 악용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강의실에 늦게 들어오면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숙제 늦게 제출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옆 학생하고 잡담은 예사였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학기 후반부터는 학생들을 엄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학생들과의 관계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씁쓸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를 처음에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강의실에 들어가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교수님이 너무 위엄에 차있어도 문제지만 위엄이 없어 보여도 문제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위엄이 적절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엄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뿐더러 엉뚱한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풍채 좋은 사람이 에헴 하는 것은 그럭저럭 봐줄 수 있지만 왜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에헴 하면 어쩐지 웃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장차림한 사람이 조용조용 주는 주의는 조언으로 들리는데 꾀죄죄한 사람이 째지는 목소리로 야단치면 괜히 신경질 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적절한 위엄의 정도를 찾아내기 위해 강의를 일단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첫 이 삼 주 동안에는 옷도 정장하고,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을 익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새시대 교수법 62호), 완벽에 가까운 강의를 하고, 복잡한 수식을 강의노트에 의존하지 않고 칠판에 거침없이 써 내려가고, 첫 강의마저 꼬빡 한 시간 다 채우고, 첫 날부터 숙제를 내줍니다. 일단 학생들이 교수님의 방대한 전문지식과 철저한 준비로 압도당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괜히 찝쩍대봤자 본전도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틈없는 강의와 정중한 대인관계로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이 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

간 중간에 학생들에게 숨 돌릴 여유도 주고, 농담도 주고받고, 자신의 허점도 노출하고, 옷을 가볍게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삼 주안에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가 나타납니다. 적절한 선에 도달하면 웬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생들이 교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느슨한 분위기에서 엄격한 분위기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소개된 두 교수님의 공통점은 바로 강의 도중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엄중한 쪽으로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위엄" 지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도달하는 방향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느낌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잔소리 코너>>
자식은 어릴 때 엄하게 키우고 커서는 풀어줘야 하듯이 학생들과의 관계에도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잔소리>>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형성되면 강의실 분위기가 너그러움으로 환하게 피어납니다. 그러면 잘못이 용서되고 부족함이 용납됩니다. 틀림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진정한 배움이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편집 코멘트>>
"새시대 교수법"이 <교수신문>에 연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벽, 2000